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한국 건축의 고전(古典)이 되다



1 개요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은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중심 법당으로서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다. ‘무량수’의 의미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상징하는 무한한 광명[無量光; Amitābha]과 영원한 생명 즉, 무량수[無量壽; Amitāyus]에서 온 것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과 더불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로 꼽히고 있다.

2 화엄종찰 부석사의 중심 법당, 무량수전

봉황산(鳳凰山) 중턱에 자리 잡은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16년(676)에 의상(義湘, 625~702)이 왕명을 받들어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펼친 곳이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관련사료](#) 무량수전의 건립 시기는 「봉황산부석사개연기(鳳凰山浮石寺改椽記)」와 「무량수전후측서북우공포묵서(無量壽殿後側西北隅栢包墨書)」에 적힌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고려 우왕 2년(1376)에 중수한 것으로 보는 설과 원융국사(圓融國師)가 부석사에 주석했던 11세기에 중창했다는 설이 있다. 11세기 중창설의 주요 근거로는 동아시아 전통 건축에서 들보 위에 세워져 종도리(지붕 위 가장 높은 곳인 용마루 지붕 아래에서 서까래를 받치는

나무)를 받치는 짧은 기둥(소슬대공)의 형태가 이른 시기라는 점, 귀기둥에서 창방(昌枋: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로 지붕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재)의 뿔목이라 불리는 부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추녀의 부재 결합 방법이 고식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무량수전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내부 기둥 8개, 외부 기둥 16개에 추녀를 받치는 보조기둥인 활주(活柱) 4개를 더해 총 28개가 사용되었다. 내부 기둥인 내진주에 감주법[減柱法: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둥 열의 내부 기둥 중 일부를 없애고 대신 큰보(大梁)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주법[移柱法: 기둥을 이동시켜 공간을 효율성 높이는 방식으로 불단이 중앙에서 뒤쪽으로 이동할 때 많이 나타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고대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면은 건물의 중앙칸인 정칸과 정칸 옆인 협칸의 길이가 약 14자(4.2m)로 같으며 협칸 옆인 퇴칸은 10자(3m)로 총길이는 약 18.75m이고, 측면의 전·후면 칸은 10자(3m)이고 중앙 칸은 18자(5.4m)로 11.52m가 되어 총면적은 216㎡(65평)이다.

기단은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 지대석, 면석, 갑석 등을 결합하여 구성한 이른바 가구식기단(式基壇)이다. 기단 정면에는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 계단을 측면 계단보다 1.5배 이상 넓게 함으로써 중앙 계단의 위계를 높이고 있다.

창호(窓戶)를 살펴보면 정면과 배면에만 문(門)을 설치하였고 측면은 벽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정면은 기둥과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방 상부 일부에만 벽체가 사용되었다. 종이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던 고려 시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량수전 정면의 원래 모습은 지금처럼 기둥과 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봉정사 극락전과 같이 벽체를 넓게 사용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창문 몇 개를 달아낸 형태였을 것이다. 고려 시대의 창문은 판문이나 살창 구조이기 때문에 단열을 위해서 창을 크게 만들지 않았고 건물 배면에 남아 있는 창문이 정면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고대 건축의 백미(白眉)

고대 건축에서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기둥에는 배흘림과 귀솟음 및 안쏠림 기법을 사용하고, 지붕에는 양곡과 조로 기법을 사용한다. 배흘림기둥이란 단면이 원형인 원기둥의 중간 지름을 크게 하고 상·하 부분을 좁게 해서 항아리 모양의 기둥을 만드는 방법이다. 현존하는 건물 중 배흘림 양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물은 무량수전 이외에 강릉 임영관 삼문이 유명하다. 귀솟음은 모서리 기둥인 우주(隅柱)를 다른 기둥보다 더 높게 하여 추녀를 높이는 방법이고 안쏠림은 우주를 안쪽으로 기울여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무량수전에는 착시에 의한 왜곡 현상을 막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시도되었다.

무량수전은 팔작지붕을 가진 현존 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다. 팔작지붕에서 합각의 무게를 받치는 중요 부재는 측면의 외부 기둥과 대들보 사이에 걸리는 부재인 총량(衝樑)인데, 이 부재는 순천 정혜사 대웅전(1617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무량수전에는 총량 부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총량 부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량수전에 팔작지붕 설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건물 안쪽 기둥인 내진주를 제거하지 않고 기둥이 있어야 할 원래의 위치에 모두 기둥을 설치한 정치법(正置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고려 시대 건물은 총 6개가 남아 있다. 남한에는 주심포 양식인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 임영관 삼문과 부석사 무량수전 4개가 있고, 북한에는 다포양식인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황주 심원사 보광전 2개가 있다. 이중 부석사 무량수전과 심원사 보광전만이 팔작지붕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배지붕이다. 일반적으로 주심포 건물에는 맞배지붕, 다포 건물에는 팔작지붕이 조합되곤 하는데 성불사 응진전은 다포 건물이지만 맞배지붕이고, 무량수전은 주심포 건물이지만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결국 두 건물은 주심포에서 다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혼용되는 양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감주법(減柱法)을 사용하면 큰 대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무량수전에서는 정치법(正置法)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굳이 큰 대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무량수전의 대량은 감주법이 사용된 대들보에 비해 크기가 작고, 단면을 보면 하부는 항아리처럼 좁게 만들어 기둥 상부 공포의 소로에 결부되도록 하였다. 무량수전 대량의 항아리 형태는 한옥 구조 발달사에서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4 무량수전 내부의 모습과 주존불의 조성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에는 앞은 크기가 2.75m에 달하는 대형의 소조아미타불좌상(국보 제45호)이 봉안되어 있다. 부석사 주존불은 고려 시대까지 현존하는 소조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상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부석사 상이 우견편단에 촉지인(觸地印)을 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석굴암 본존불을 재현한 목조 석가불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진행된 조사에서 불상의 소재가 나무가 아닌 흙임이 밝혀졌고, 존명 또한 아미타불로 정정되었다. 원응국사 비문에는 좌우보처 없이, 아미타불만을 독존으로 봉안한 이유가 ‘화엄일승(華嚴一乘)’ 사상에 기반한 창건주 의상대의 의도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불단을 서쪽에 치우치게 배치하고, 불상은 동향을 하도록 하였다. 불전의 진입 방향과 불상 봉안 위치를 어긋나게 배치한 것을 두고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기도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불상을 서쪽에 봉안한 예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 대전 고산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양산 통도사 영산전 등이 있다. 이들 불전에 모두 아미타불을 모신 것은 아니지만 무량수전과 공통된 공간 구성 의도가 엿보인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1915~1935)에 실린 무량수전 내부 사진을 보면 20세기 초까지도 법당에 전돌이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미단 안쪽에는 현재 2종의 크기가 다른 전돌이 남아 있다. 전돌의 존재는 마루가 깔리기 전 법당의 모습과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크기가 작은 전돌에는 녹유를 시유한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녹유전은 대부분 사격(寺格)이 높은 성전사원(成典寺院) 또는 최상의 건축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 녹유전이 사용되었던 사찰은 부석사를 비롯하여 영묘사지(靈廟寺址), 황룡사지(皇龍寺址),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감은사지(感恩寺址) 등이 있다. 녹유전은 통일신라시대 황실 사찰에 버금가는 사찰에서만 출토됐다는 점에서 부석사의 사격(寺格)을 짐작 할 수 있다.

불단은 가장 안쪽에 방형대좌가 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목재 수미단이 증축된, 총 3중 구조로 되어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형대좌는 가로 2.65m, 세로 2.17m, 높이 1.06m의 크기로 7톤에 달하는 불상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 방형대좌는 적심석과 기와, 갑석, 진흙으로 채워져 있다. 대좌 안을 기와로 채워 넣는 방식은 백제 건물지에서 보이는 ‘와적(瓦積)’기단이 활용된 것이며, 와적기단은 소조불 제작 방식과 더불어 백제의 기술이 신라에 전파된 일례로서 경주 낭산 능지탑(陵旨塔)의 기단부 네 면에 안치된 대형 소조불좌상의 대좌에서도 확인된다.